

광주시·전남도의회 민선 6기 전반기 결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전반기에 무리없이 당면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도민과 소통', '일하는 의회' 등 시의회와 도의회의 의정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등 외부로부터 시·도의회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 대안 제시

광주시의회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계층간 갈등을 중재·조정함으로써 지역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반기 285일간 안전 584건을 심의했으며 직접 발의 140건을 포함, 민생 관련 조례 340건을 제정·개정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민생 조례 340건 제·개정

5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를 실시, 1039건을 지적해 민생현안 문제에 대해 애정을 쏟았다. 호남선 KTX 개통과 하계 U대회 성공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도시철도 2호선 원안건설 촉구, 인사청문회 실시, 입을 위한 행정국 제창 촉구, 누리과

정 예산 국가 지원 촉구 등 중앙과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썼다. 시의회는 정책토론회(42회)·정책네트워킹(45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102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지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시의회는 총 22회·285일 회기 동안 조례안 340건, 예산·결산안 36건, 동의·승의안 69건, 기타 139건 등 총 58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혁신

과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전구에서 가장 많은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해당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또 광주발전기반연구소연구회와 의정혁신연구회 등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한 뒤 14회에 걸쳐 회의를 하는 등 자발적으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정 실천 주력

전남도의회

전반기 체계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경제 협력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특히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라는 제10대 전남도의회의 의정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남도의회는 전반기 265건의 안전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이 중 150건이 의원발의로 제정돼 제9대 전반기 113건에 비해 37건이 늘었다. 이는 도

104회 토론회 현안해결 물고

의원보좌관계 도입 활동 활발

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760건의 문제를 짚으며 시정교과제를 요구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또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2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각 상임위는 행정·환경·기획·안전·경제·관광·문화·건설·소방 등 분야별 맞춤형 현안을 선정했다. 도의회는 총 104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도의회는 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연대, 의원보좌관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지난해 12월 4일에

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촉구결의안을 국회법사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으로 도의회는 전반기 의정과 관련, 29명의 의원이 각종 수상을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의회 정령도 측정결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령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원 9명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선정

반재신·김옥자·서동욱 의원 포함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1)·김옥자(광산3)·김보현(서구2) 의원과 전남도의회 송형곤(고흥1), 이준호(장성2), 서동욱(순천3), 고정석(목포3), 주연창(여수4), 한택희(순천4) 전남도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의정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1년간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준다. 광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인 반재신 의원은 도시 재생사업 대안제시와 주거 취약계층 복지확대 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옥자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보현 의원은 정책이력적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송형곤 전남도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북도의회와 상생협력 기틀을 마련했고, 이준호 전남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징계조례를 발의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작은 도서관 설치

와 병역 명분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고정석 의원은 2016 F1 개최여부, F1 중단시 대책, 영세 중소기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활발한 도정질의를 했다. 주연창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인 농어촌발전 연구회와 녹색에너지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정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한택희 의원은 전남교육정책 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교육 공동체 인권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새 정무특보 공모 ... 민선 6기 세번째

광주시가 새 정무특보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무특보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이해명 정무특보의 사외 표명에 따라 후임을 물색해왔다. 현재 후임 정무특보로는 전직 시의원 고 시민단체 대표, 정당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는 정무특보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선 6기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3번째 공모인 셈이다. 민선 6기 윤장현 호(號) 출범 후 장현 전 호남대 교수(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어 이해명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두차례나 중도 하차했

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잦은 교체로 핵심 정무라인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구설도 나온다. 윤장현 시장측 한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사들 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두 차례나 중도하차한 상황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특보 역할은 시정에 대한 정부, 국회, 정당 등과의 협의 및 보좌,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과의 시정 협의, 소통 등이며 2년 임기에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해수부·경남도 적조방제 공동 대응

전남도는 23일 해양수산부, 경남도와 '적조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적조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입차하고 있는 황도 살포기, 적조 방제용 바지선 등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장비는 전해수 황도 살포선 9척(전남 2·경남 7), 중형 황도살포기 16기(전남 5·경남 11), 바지선 26척(전남 12·경남 14), 드론 2기(해수부) 등이다. 적조 방제장비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차료, 인건비, 보수·정비를 책임지

고, 해양수산부는 장비의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밀도 적조 발생 시 전남도와 경남도는 상호 보유 적조 방제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태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장은 "지난해 적조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어업인도 적조 대응을 위한 양식 사육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적조 피해 최소화에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산림경영인대회가 23일 보성 다비치콘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황주홍 국회의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국 산림경영인대회 보성서 열려

전국 산림경영인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로 보성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황주홍 국회의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시·군 21개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도지회, (사)한국양묘협회 전남도지회 등 30여개 입업단체와 입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특강과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산림복합 경영의 모델인 윤제림 현장탐방 등의 순으로 열렸다. 특강은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의 '임업 과거, 현재, 미래', 윤차규 산림청 사육경영소독과장의 '임업인 지원정책 및 산림정책 추진방향', 김남준 국립산림과학원장 연구소 소장의 '산지양계를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 등이 마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 YANG LEEPS apartment complex. Features include: '최첨단 SMART 아파트 리프스(LEEPS)는 한양건설이 새롭게 이끄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화순의 첫 브랜드 아파트, 중심권의 마지막 기회!', '전남대병원 등 의료산업단지 유입으로 수요 대거 발생!!! 화순지역 아파트 90%가 20년 이상 노후했다면?', '문의 061)374.5454', '총 610세대', '10분 거리 광주남구 생활권', '토지매입 완료', '신규아파트 품귀현상 가속화', '대박경품행사 6월 24일', '주/택/홍/보/관/오/늘/오/픈', '화순경찰서 사거리'.